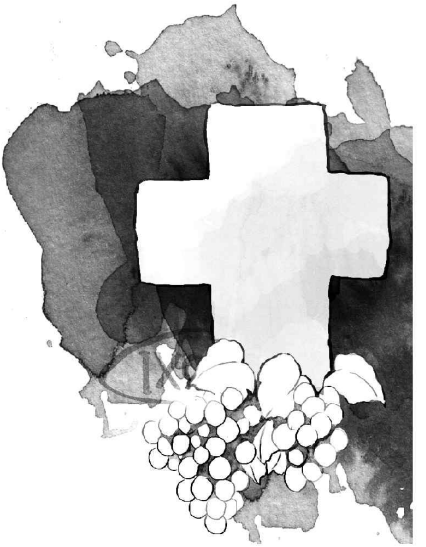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갑작스런 무더위와 오랜 가뭄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논에 심겨진 어린모들이 누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농부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십시오. 한 줌의 물도 없는 강바닥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이 땅의 뭇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남과 북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전쟁은 일어났고, 그 전쟁이 만들어낸 아픔과 상처는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물지 않았습니다. 휴전의 긴장과 전쟁의 위협 또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님, 화해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남과 북이 만나 대화하게 하시고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 60:20 …… 인도자

▲ 교 독 문 …… 102. 나라 사랑(4)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이한림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 함께

▲ 성경봉독 …… 겔 36:22-28 …… I. 인도자
II. 김승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2부찬　양 …… 그 사랑을 찬양해 …… 참빛찬양대

주의 베푸신 사랑 생각할 때 은혜 넘쳐 찬양드리네
나의 삶속에 주가 계시니 두려울 것 없으리
죄에 물든 영혼 깨끗케하사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깊은 고통에 신음할 때도 손 내밀어 이끄시네
그 사랑을 기억해 한없는 자비은혜를
그 사랑 변치 않고 영원하네 결코 잊지 않으리
그 사랑을 찬양해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큰사랑 온 마음으로 찬양해 주 나라 임할 때까지 ×2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해 한없는 자비은혜를
그 사랑 변치 않고 영원하네 결코 잊지 않으리
그 사랑을 찬양해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큰사랑 온 마음으로 찬양해
주 나라 임할 때까지 주 나라 임할 때까지
그 사랑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말 씀 …… **새 나라 꿈틀거림**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I. 브라스밴드

…… 582.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II.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새로운 나라는 우리가 새로워질 때 만들어집니다.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맑게 사십시오. 돌 같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삿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새로운 실천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환경컬럼 ■

가뭄나기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여러 달째 길어지면서 길가 잡목과 풀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동네 텃밭은 주인들이 수시로 물을 주기 때문에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듯 보이나 사람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들식물들은 '가뭄에 살아남기' 모드로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일부 관목들은 벌써 말라죽었고, 나무들은 이파리들을 모두 축 늘어뜨렸고, 땅에 붙은 작은 풀들은 숨도 쉬지 않는 듯하다. 석양의 해는 오늘도 어김없이 붉은 해무리를 두르고 있다.

바쁜 일과 때문에 자주 물을 줄 수 없는 텃밭 주인들은 애써 심고 가꾸어온 농작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동네 텃밭의 한 귀퉁이를 얻어 푸성귀 몇 가지를 키우고 있던 터라 비가 오고 안 오고에 거의 무심하게 살아온 나도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아주 메마른 땅은 물을 줘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또르르 흘려버리고 만다. 땅속에도 어느 정도의 물기가 있어야 물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나보다. 티브이에서는 연일 갈라지는 논밭과 타들어가는 농부의 짜디짠 눈물이 방송된다. 이쯤 되어가다 보니 집에서 쓰는 허드렛물마저 송구스러워진다.

텃밭의 채소들이 그나마 물을 얻어먹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길옆의 타들어가는 잡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물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할까. 채소밭의 채소들을 부러워할까. 자신들을 모른 체하는 나를 원망할까. 어떠했든 간에 그 들풀들에게 섣불리 물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옆의 풀에 주면, 그 옆의 풀은? 또 그 옆의 풀은? 밭에 주기 위해 공동으로 개발해 놓은 지하수가 있는데 이 물마저 바닥나기 시작했는지 벌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판에 길가 잡초에게도 물을 주는 것은 이웃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다. 어쩌면 내가 물을 준다 해도 이들에게는 전혀 도

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이 염천의 목마름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서너 바가지의 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들의 목마름을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범위와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일 수도 있으리라. 숨 쉬는 것도 멈춘 듯 염천의 뙤약볕 아래 그저 온몸으로 가뭄을 견뎌내고 있는 이 작은 풀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아니 생명의 숭고함 앞에 숙연해진다.

그런데 둘째 군대 면회 가던 전날 밤부터,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은혜. 나는 '은혜'라는 말을 이처럼 시각적으로 체험해본 적이 이때껏 없다.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는 온 세상이 은혜에 푹 젖어들고 있다. 하도 메말라 물을 주면 오히려 그 물이 겉돌던 땅은 빗물 한 방울도 놓칠세라 스펀지처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주인이 찔끔찔끔 주는 물을 겨우 받아 마시던 우리 집 채소밭 채소들도, 땅에 바짝 붙어 그 모습을 표정 없이 바라보는 듯하던 잡풀들도, 이보다 더 혹심한 가뭄을 수없이 겪어냈을 500살 넘은 은행나무도, 어린 나무도,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들도, 산도, 집들도, 채소밭에 열심히 물을 준 사람도, 물주기를 포기한 사람도, 채소를 가꾸지 않는 사람도 모두 모두 흠뻑 젖어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장엄한 합창이었다. 농부의 짠 소금기로 얼룩졌던 눈물자국도 빗물에 녹아 씻기었으리라. 여간해서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봐도 한번 푹~ 주시는 비만 못한 거야! 그게 바로 은혜지!" 하루도 못 쉬고 아침저녁 물을 길어다 채소밭에 주느라 허리가 휘던 그다.

작은 들풀이, 옆 채소에만 주는 물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토록 온몸으로 기다린, 은혜이다. 들풀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누가 이 목마름의 질곡에서 자기를 살려줄지를.

- 청파교회 환경부

■ **마음으로 읽는 글** ■

작은 평화

- 권달웅

어항 앞에 있으면
우리도 평화롭게 노니는
금붕어가 된다

화려한 말보다는
아주 작은 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우리도 행복하게 된다

믿음이 있는 말을 주고받는
정직한 세상에서
우리도 살고 싶다

금빛 지느러미처럼
아름답고 밝은 마음으로
미움 없이 입 맞추며
우리도 살고 싶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인식 김정숙 권미숙 권미정 김기석 김희우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재환 김진선 김중현 성귀옥 김지윤 정영우 김지현
김철수 유영남 노진래 최형경 박기원 이미영 박노수 남인자 박민아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서효진 성지현 송정근 이소선 송형운 하미림 심상숙 안미숙
양경해 오민용 오자영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봉옥 이순이 이영욱 장은주 이용석 이은주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장원호 박성희 정연경 정현선 유병선 최소라 고인성 최윤화 최진성
최영은 최철수 곽권희 허명선 현 진 홍순구 안홍숙 무명1

감사헌금
김금순 김영주 윤대식 윤승현 윤지현 김정린 김희진 노태양 정수미 노라엘
박소원 박재영 이현정 박지혜 박진주 방경선 소병화 안기영 안성호 김희숙
엄소현 연준호 오현우 유수진 이상도 이소영 이영하 임선양 전병준 안수지
정서윤 최병민 서지연 최형서 추은총 하진채 하현일 김광우 한상수 남해린
무명12

생일감사헌금
김 극 차주미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주선 이영하 무명7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평화 세미나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1. **평화세미나 :** 오늘 오후 1:30 평화부가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다양성과 인권의 존중 - 우리 이웃 성소수자 이야기'입니다.
2. **모집 :** 1부 예배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회실에 말씀해 주세요.
3. **감자 수확 :** 7월 1일 환경부에서 홍천 동면교회로 감자 수확하러 갑니다. 노동과 식사와 산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까지 신청바랍니다. (황현성 권사 010-9001-0682)
4. **생협 판매 :** 단양 무농약 한지형 육쪽마늘 주문예약 받습니다. 3kg에 38,000원(택배비 3,000원 별도) 6월 중순 수확 후 1개월 건조 후 7월 18일경 배송예정.
5. **별세 :** 지난 20일 김재광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6. **신앙실천 :**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 떡과 커피 대접 : 권혁순 박혜경

다음 주 설교 본문	빌 1:3-11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김기석	이명희

	1부 영접위원	김성우	**헌금위원**	박유경
7월	**2부 영접위원**	장원호 조문규 박기영 진정숙 주은경 김현주		
	2부 헌금위원	장원호 정경례		

오늘 식당 봉사	찬양대		
다음주식당봉사	박영신 김성순 조경숙 박미연 이수자 이미휘 김종락 설규범		
오늘설거지봉사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박재영